



다산초당

오감 만족 봄나들이, 강진이 부른다

26일 시티투어 '오감통통' 출발
마랑놀토수산시장도 개장



▼마랑놀토수산시장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봄나들이 여행을 하기에 제격이다. 요즘 맛과 멋, 즐거움이 있는 그곳, 감성여행 1번지 강진으로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일 매진사례를 기록한 강진 시티투어 버스 '오감통통'을 타고 강진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 남해안 최고의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의 보고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부터 음악과 음식, 읍내시장이 어울려 강진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오감통까지..

남도답사 1번지를 넘어 감성과 정이 묻어나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에서 올 봄을 느껴보자.



투어버스 '오감통통' 청자코스·다산코스 골라서 탄다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행 강진 속살 깊숙히 누벼
청자박물관·다산초당 들르고 가우도 걸으며 여유 만끽

올해 강진여행의 첫 마중물, 강진시티투어 '오감통통'은 2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1월까지 계속 강진 전역을 누빈다.

지난해 매회 매진을 기록해 강진 여행의 새로운 길을 연 버스 '오감통통'은 여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난해 매주 토요일만 운행하던 것을 올해는 토요일 청자코스, 일요일 다산코스 두 개로 나눠 진행한다.

청자코스 주요 일정은 광주 유스퀘어를 출발해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마랑놀토수산시장, 고려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등이다.

다산코스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해 국보를 품고 있는 무위사, 백운동 별서정원, 영랑생가, 시문학파기념관, 강진읍내 오감통, 다산초당 등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는 두 코스 공통분모다. 그만큼 향기나는 섬으로서 '함께해 길'을 걸으며 쉽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배려했다. 오감통통 탑승비용은 14세 이상 8000원,

14세 미만은 5000원이다. 1회당 접수마감 인원은 42명으로 선착순이다.

코스 진행중 유료관광지인 청자박물관, 민화뮤지엄, 다산기념관은 일반 관광객 관람료의 절반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오감통통은 여행자들의 기쁨을 더해 주기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2016년 오픈기념으로 26일과 27일 탑승료를 50% 할인한다.

강진 장날인 4일과 9일에 탑승하는 여행자에게는 장바구니를 선물로 주고, 3일과 8일이 장날인 강진 병영면을 방문했을 때 도 역시 같은 선물을 증정한다.

매월 '마지막 주 데이' 이벤트는 전남도 주관 남도 한바퀴 탑승객 가운데 일부를 추첨해 '강진오감통통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밖에 4월중에는 세안 후 사용할 물타월, 여름철인 7월에는 접이식 부채, 추위가 닥치는 11월에는 핫팩 등을 나눠 줘 강진의 정을 보낸다.

강진 시티투어 오감통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우도 출렁다리



마랑놀토수산시장 회프기쇼

마랑놀토수산시장서 갯바람 씨고 신선한 횡감 맛보고

토요음악회 들으며 청정해역 수산물 먹으니 미소가 절로
회프기쇼·가족체험납시·해양레포츠 등 즐길거리도 넘쳐

국도 23호선인 강진읍을 지나 마랑항으로 가는 길은 즐겁다. 아트막한 구릉을 왼쪽 어깨에 끼고 오른쪽 너머로 잔잔하게 흘러지는 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미소가 절로 피어난다. 지난해 18만여명이 다녀간 마랑놀토수산시장은 26일 남해안 최고의 멋진 장을 펼친다.

신뢰, 친절, 청결을 바탕으로 두고 준비에 한창인 상인의 손길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군청과 면사무소 직원들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하다.

'개장 첫날엔 아예 원가로 판매해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번 참에는 '신도불이' 가수 배일호와 '로맨스 사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민주도 초대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놀토수산시장 뒤편에 주차장 70면을 새로 조성했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이동식 화장실 2개를 마련했다.

마랑놀토수산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최고의 청정해역인 마랑항의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수산물, 해산물이 풍부했기에 가능했다. 올해 역시 최고 품질,

최고 신선, 최고 저렴을 내건 '3최' 먹거리와 토요음악회의 신나는 무대, 남해 최고의 연안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다 바가지와 수입산, 비브리오 패혈증이 없는 '3무'로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만의 특색을 맛껏 보여줄 작정이다.

마랑놀토수산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산물들은 강진 청정해역에서 잡아 강진군수협이 당일 위판한 것으로 신뢰 확보는 물론 시중가보다 30% 저렴하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음악회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회프기쇼와 가족체험 납시, 해양레포츠, 마술공연 등을 즐기고 오감행복회와 원장물회, 삼합라면, 소나비, 장어탕 등 5대 요리를 먹으면 어떨까, 여기에 전복과 낙지, 바지락, 꼬막,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면 금상첨화다. 이 밖에도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역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갯바람이 컷불을 간지럽히고 막 뜯 횡감을 찢가락으로 집어 올릴 때 바로 그때 노랫가락이 흐르는 곳,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이 답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남원시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